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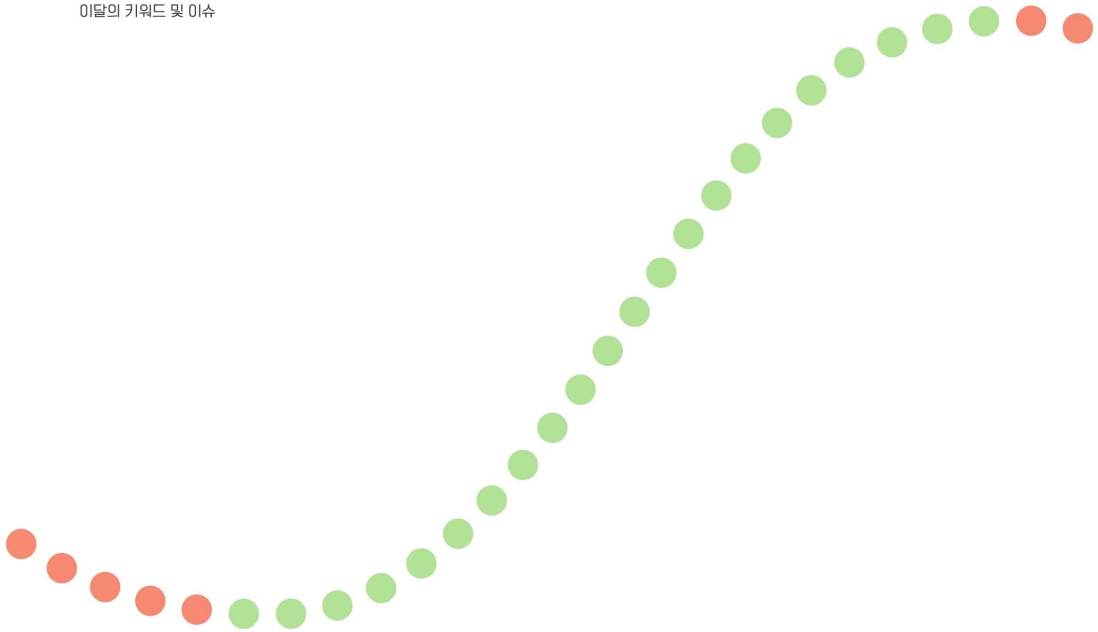
2024

경제동향 개관

경기, 생산, 소비, 투자,
건설, 교역, 고용, 물가,
금융, 부동산, 중소기업

BIG DATA

이달의 키워드 및 이슈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GDI 경북연구원

04

2024

경북 경제동향

GyeongSangBuk-Do Economic Trends

경북경제동향 개관 3

1. 경기 13
2. 생산 15
3. 소비 18
4. 투자 20
5. 건설 21
6. 교역 23
7. 고용 24
8. 물가 27
9. 금융 28
10. 부동산 30
11. 중소기업 33

BIG DATA 34

1. 이달의 키워드 34
2. 이달의 이슈 37

개관 경북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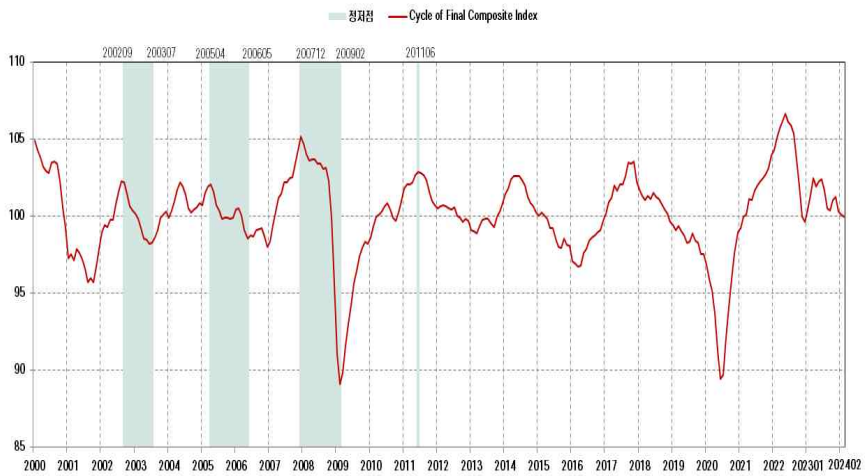
구 분	항 목	기준월
경 기	경기종합지수	24.02
	BSI	24.04
생 산	광공업생산지수(생산, 출하, 재고)	24.03
	서비스업생산지수	
소 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4.03
	BC카드매출액	24.03
투 자	자본재수입액	24.03
건 설	건축허가면적	24.03
	건축착공면적	
	건설수주액	
교 역	수출액	24.03
	수입액	
고 용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24.03
	고용률 / 실업률	
	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물 가	소비자물가지수	24.04
	생활물가지수	
금 융	가계대출액	24.02
	주택담보대출액	
	기업대출액	
부 동 산	주택가격지수	24.03
	아파트가격지수	
	주택매매거래량	
중소기업	어음부도율	24.03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총괄 경북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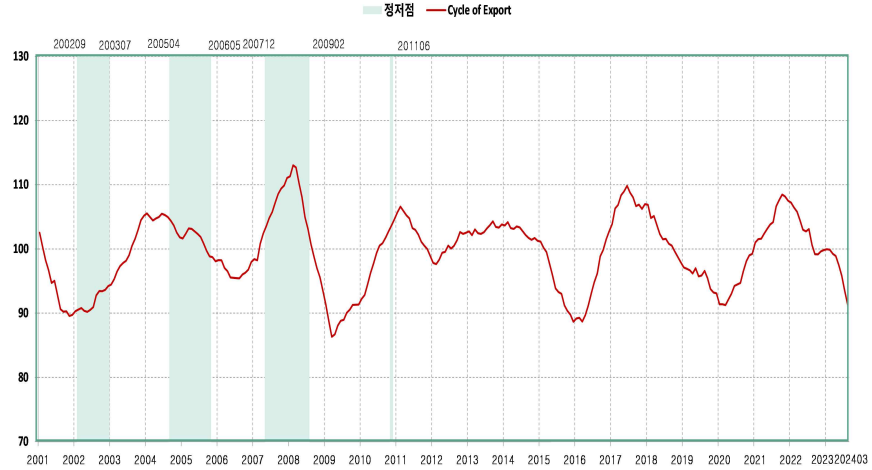
경 기	• 1월에 이어 경북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부품 등의 수출 감소와 지역 내 제조업 기업 업황 부진으로 동행종합지수 3개월 연속 하락
생 산	•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 전기장비, 비금속광물, 화학제품, 1차금속, 전자·통신, 자동차 등에서 감소한 반면, 목재·나무제품, 의료용 물질·의약품,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는 증가
소 비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상승, 물가 상승 요인 반영
투 자	• 자본재수입은 기계류와 정밀기기, 전기·전자기기, 기타 자본재의 수입 감소, 수송장비의 수입은 증가
건 설	• 건설수주액은 댐, 치산·치수, 토지조성, 기계설치, 공장·창고 등의 수주 증가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환
교 역	• 3월 수출액,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고 용	• 제조업 취업자수는 장기 감소세 지속, 도소매·숙박 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고용 부진 • 임금근로자수 전년동월대비 10개월 연속 감소 흐름 지속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 보합으로 상승폭 둔화 • 2% 후반대 상승률은 여전히 농수산물 및 식품 물가는 높은 수준이나, 당초 예상과 달리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낮은 영향
금 융	• 2월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및 기업대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부 동 산	• 3월 주택매매가격은 상승 전환하며 거래량도 증가했지만 전세가격은 주택 및 아파트 모두 하락세 지속
중소기업	• 3월 어음부도율은 전국대비 동일

순환변동치 경제지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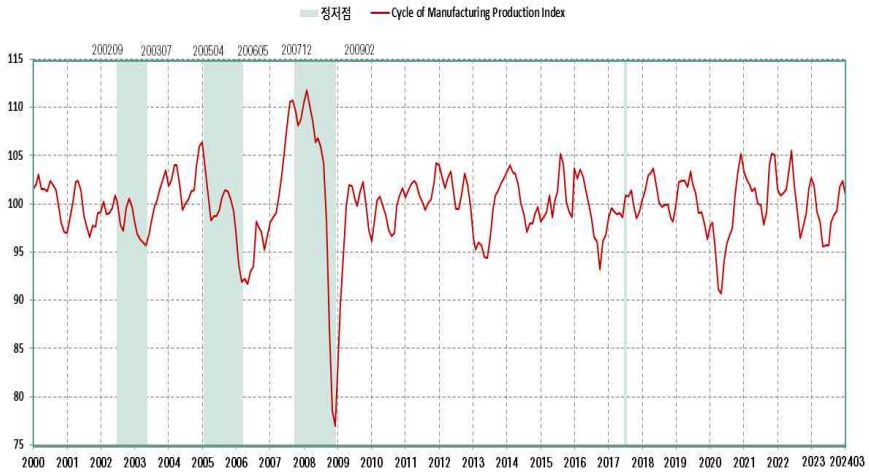
경복 동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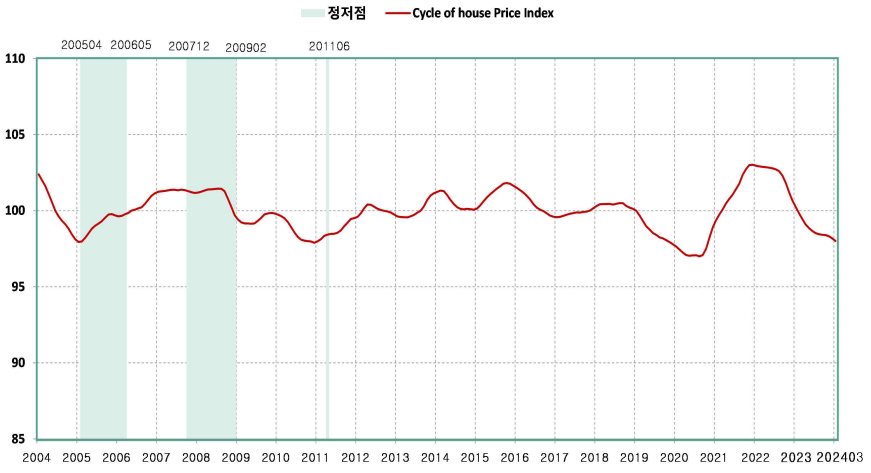
수출액



제조업생산지수



주택매매가격지수



Infographics

경기

전월대비 증감

경기종합지수(2월)

동행종합지수 103.8 — 0.1% ▼ — 0.1p ▼ — 순환변동치 100.0

기업경기실사지수(4월)

제조업 69 — 6p ▲ — 1p ▼ — 비제조업 66

중소기업 가동률(3월) 73.2% 0.0%p

생산

전년동월대비 증감

광공업생산지수(3월)

생산	출하	재고
96.7	98.4	115.3
8.7% ▼	6.0% ▼	3.5% ▲
105.9 / 96.7	104.7 / 98.4	111.4 / 115.3
2023. 03 / 2024. 03	2023. 03 / 2024. 03	2023. 03 / 202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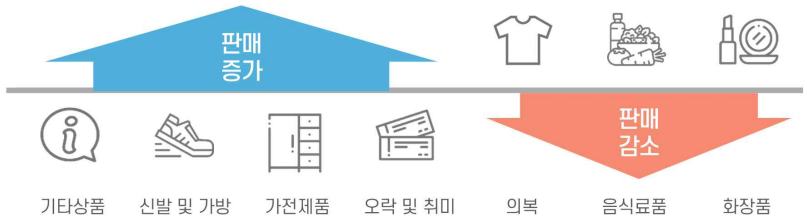
주1. 경기를 제외한 전 지표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주2. 이미지출처 : FLATICON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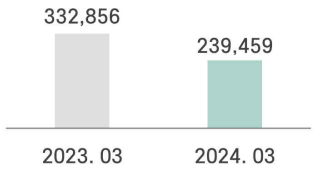
전년동월대비 증감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3월)	BC카드사용액(3월)	자동차신규등록대수(3월)
92.4	3,851억 원	6,378대
0.4% ▲	3.8% ▼	24.8% ▼

(부문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월대비 증감)



투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본재수입액(3월)

2억 3,946만 달러

28.2% ▼

건설

전년동월대비 증감

건축물허가면적(3월)	건축물착공면적(3월)	건설수주액(3월)
1,387,615㎡	291,779㎡	5,566억 원
84.4% ▲	24.3% ▼	44.7% ▲

교역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출입동향(3월)

수출액
30.51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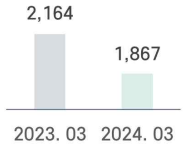
11.5%

13.7%

수입액
18.67억 달러



무역수지
11.84억불
흑자



무선통신기기	2.7% ▲	정밀화학원료	53.0% ▼
철강판	8.4% ▼	합금철선철	26.3% ▼
정밀화학원료	53.5% ▼	알루미늄	6.3% ▲

고용

전년동월대비 증감

고용동향(3월)

15세 이상 인구
228만 5천 명
3만 8천 명 ▼

경제활동인구
148만 5천 명
1만 8천 명 ▼

취업자
144만 5천 명
1만 9천 명 ▼

고용률
63.2%
0.1%p ▲

실업자
4만 명
2천 명 ▲

실업률
2.7%
0.1%p ▲

비경제활동인구
80만 1천 명
1만 5천 명 ▼

실업급여자수 35,869명

임금근로자수
91만 9천 명
1만 8천 명 ▼

자영업자수
42만 1천 명
3천 명 ▲

OPEN

물가

전년동월대비 증감

소비자물가조사(4월)

소비자물가지수
114.81

2.8%

3.2%

생활물가지수
116.68

식료품및
에너지제외지수
110.66

2.3%

0.6%p

기대
인플레이션율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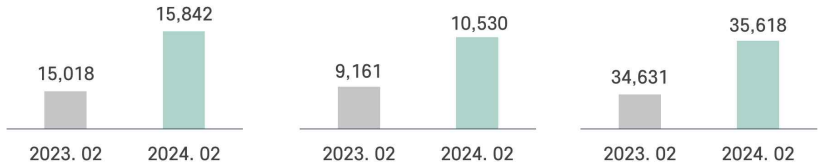
교통 | 기타상품 및 서비스 | 오락 및 문화 | 주류 및 담배 |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금융

총 52.0조 원

전년동월대비 증감

가계대출액(2월)	주택담보대출액(2월)	기업대출액(2월)
15조 8,420억 원	10조 5,310억 원	35조 6,180억 원
5.5% ▲	15.0% ▲	2.8% ▲



부동산

전년동월대비 증감

매매가격지수(3월)

주택
100.6





아파트
98.8

부동산거래현황(3월)

주택매매거래량
3,153호





미분양주택
9,561호

중소기업

해당월 수치

어음부도율(3월)



0.27%

부도업체수(3월)



0개

신설법인수(3월)



293개

경기

2월 경북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2월
동행지수 전월대비
하락

✓ 동행종합지수는 103.8로 전월대비 0.1% 하락, 순환변동치는 100.0으로 전월차 0.1p 감소

- 구성지표 중 제조업전력사용량(1.5%), 대형마트판매액지수(불변)(5.6%)는 증가, 비농가취업자수(−0.5%), 대구경북제조업업황BSI(−0.6%), 생산자제품출하지수(중간재)(−2.2%), 수출액(실질)(−3.2%), 수입액(실질)(−1.3%)은 감소

2월 국내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상승

✓ 동행종합지수는 112.0으로 전월대비 0.4% 상승, 순환변동치는 99.9로 전월차 0.2p 증가

- 구성지표 중 건설기성액(2.5%), 서비스업생산지수(0.8%), 광공업생산지수(0.5%), 내수출하지수(0.2%), 비농림어업취업자수(0.2%)는 전월대비 상승, 수입액(−0.3%), 소매판매액지수(−0.6%)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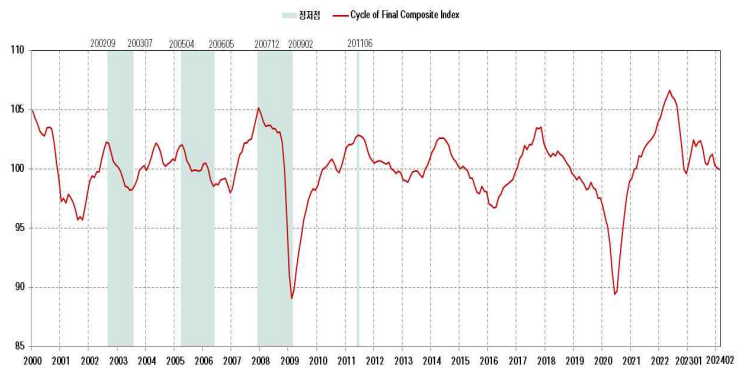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2020=100)

구 분		2023				2024	
		09	10	11	12p	01p	02p
경북	동행종합지수	104.5	105.1	105.3	**104.2**	**103.9**	**103.8**
	전월대비(%)	−0.1	0.6	0.2	**−1.0**	**−0.3**	**−0.1**
	순환변동치	100.4	101.0	101.3	**100.3**	**100.1**	**100.0**
	전월차(p)	−0.1	0.6	0.3	**−1.0**	**−0.2**	**−0.1**
전국	동행종합지수	110.5	110.9	111.0	**111.1**	**111.5**	**112.0**
	전월대비(%)	0.1	0.4	0.1	**0.1**	**0.4**	**0.4**
	순환변동치	99.6	99.8	99.7	**99.6**	**99.7**	**99.9**
	전월차(p)	−0.2	0.2	−0.1	**−0.1**	**0.1**	**0.2**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경북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 순환변동치

: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같은 추세 속에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의 속도가 주기적으로 등락하는 순환변동을 원자료에서 계절, 불규칙, 추세요인을 제거한 뒤 순환변동 요인을 나타낸 지표

4월 제조업 BSI는 69, 비제조업 BSI는 66

4월
제조업 BSI
전월대비 증가,
비제조업 BSI 감소

✓ 제조업 업황BSI는 69로 전월대비 6p, 5월 업황 전망BSI는 74로 10p 각각 증가

- 매출BSI는 80으로 전월대비 1p 감소, 5월 전망은 85로 3p 증가
- 생산BSI는 81로 전월대비 2p 증가, 5월 전망은 87로 보합
- 채산성BSI는 79로 전월대비 6p, 5월 전망은 83으로 6p 각각 증가

✓ 비제조업 업황BSI는 66으로 전월대비 1p, 5월 업황 전망BSI는 69로 5p 각각 감소

- 매출BSI는 80으로 전월대비 3p, 5월 전망은 78로 3p 각각 증가
- 채산성BSI는 78로 전월대비 2p, 5월 전망은 81로 6p 각각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기준치=100)

구 분	2023				2024				
	09	10	11	12	01	02	03	04	05
제조업 BSI	58	65	67	63	60	65	63	**69**	–
	(65)	(62)	(60)	(67)	(67)	(62)	(70)	**(64)**	**(74)**
비제조업 BSI	70	66	71	73	64	68	67	**66**	–
	(66)	(72)	(66)	(69)	(63)	(62)	(68)	**(74)**	**(69)**



★ 기업경기조사지수

(Business Survey Index ; BSI) : 경기예측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사용하는 지표

주 : ( )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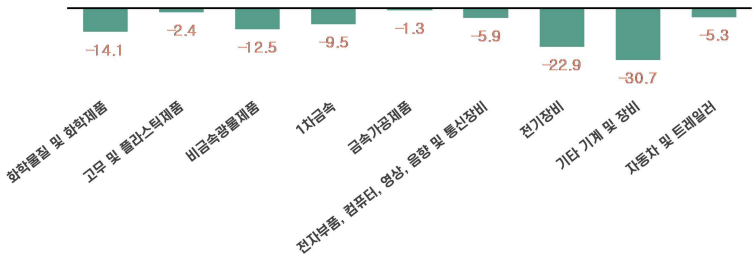
생산

3월 광공업생산지수는 96.7로 전년동월대비 8.7% 감소, 전월대비 5.0% 증가

3월
광공업 생산, 출하, 전년동월대비 감소, 재고는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는 목재·나무제품, 의료용 물질·의약품,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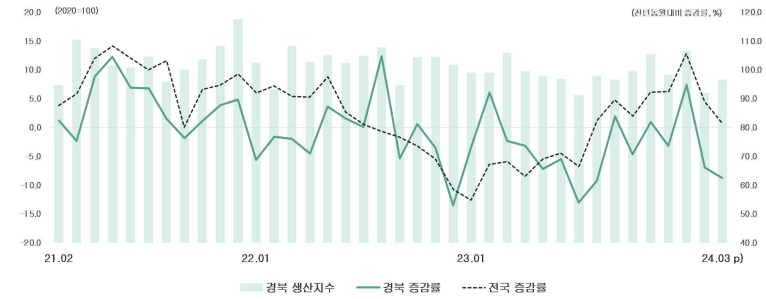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생산에서 기계장비(−30.7%), 전기장비(−22.9%), 비금속광물(−12.5%), 화학제품(−14.1%), 1차금속(−9.5%), 전자·통신(−5.9%), 자동차(−5.3%) 등은 감소
- 목재·나무제품(7.7%), 의료용 물질·의약품(4.4%), 기타 운송장비(124.2%) 등은 증가



광공업생산지수

(2020=100, 단위 :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p	03p
102.8	96.7	99.7	105.5	98.5	106.6	**92.1**	**96.7**
(−1.7)	(2.0)	(−4.6)	(1.0)	(−3.1)	(7.5)	**(−7.0)**	**(−8.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광공업생산지수

: 산업 생산 활동에 대해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 수량을 조사하여 작성되는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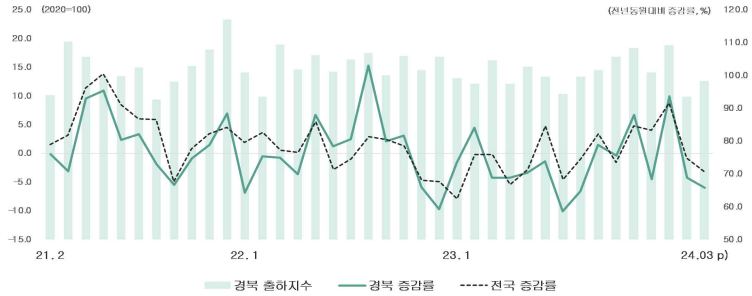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0% 감소, 전월대비 5.4% 증가

- 전년동월대비 출하는 금속가공(6.4%), 의료용 물질·의약품(69.6%), 목재 및 나무제품(11.5%) 등 증가, 기계장비(−27.9%), 비금속광물(−23.9%), 자동차(−8.7%), 화학제품(−8.6%), 전기장비(−8.0%)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출하지수

(2020=100, 단위 :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p	03p
103.1	101.5	105.6	108.3	100.9	109.1	**93.4**	**98.4**
(−0.1)	(1.5)	(−0.4)	(6.7)	(−4.5)	(10.0)	**(−4.2)**	**(−6.0)**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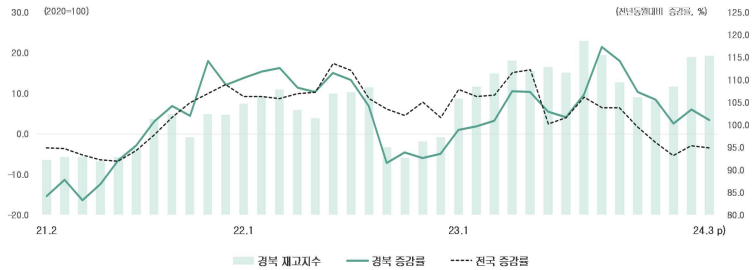
광공업제품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5%, 전월대비 0.3%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재고는 1차금속(20.8%), 전자·통신(5.9%), 자동차(4.4%),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350.0%) 등이 증가, 비금속광물(−49.6%), 전기장비(−17.5%), 의료·정밀·광학기기(−24.5%), 고무·플라스틱(−11.2%), 금속가공(−4.4%) 등이 감소

광공업제품재고지수

(2020=100, 단위 :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p	03p
102.3	115.5	109.4	106.2	105.4	108.5	**115.0**	**115.3**
(6.3)	(21.5)	(18.0)	(10.3)	(8.4)	(2.6)	**(6.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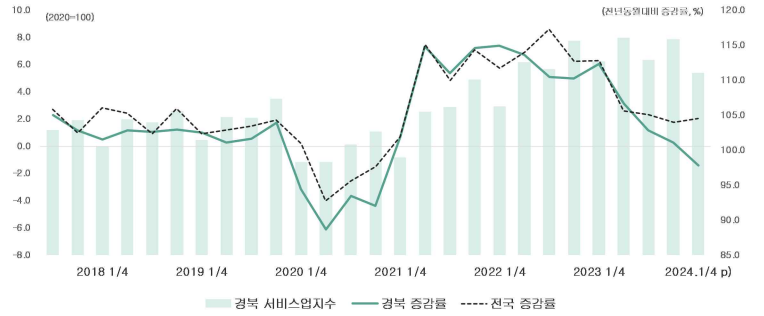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1/4분기 서비스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4%**, 전분기대비 4.1% 각각 하락

서비스업생산지수

(2020=100, 단위 : %)

2022			2023				2024
2/4	3/4	4/4	1/4	2/4	3/4	4/4	**1/4p**
112.6	111.6	115.6	112.7	116.1	112.9	115.9	**111.1**
(6.7)	(5.1)	(5.0)	(6.0)	(3.1)	(1.2)	(0.3)	**(−1.4)**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기비임.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지수

: 서비스업의 성장세를 가늠하는 지표로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업종의 생산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는 지수

소비

3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전월대비 1.6% 하락

3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92.4로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전국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104.1로 전년동월대비 2.7% 하락
- 경북 대형마트판매액지수는 87.3으로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 전년동월대비 기타상품, 신발·가방,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증가, 의복, 음식료품, 화장품 감소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p	03p
대형 소매점	99.5	103.0	88.8	91.5	96.7	89.6	**93.9**	**92.4**
	(−4.1)	(0.6)	(−5.8)	(2.5)	(−1.6)	(−24.9)	**(17.1)**	**(0.4)**
대형마트	96.0	100.0	81.9	86.2	92.8	86.3	**91.4**	**87.3**
	(−6.1)	(1.0)	(−4.9)	(2.5)	(−1.0)	(−27.4)	**(19.9)**	**(0.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3월 BC카드 매출액은 3,851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 하락

✓ 3월 경북 매출액은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로 전년동월대비 하락

- 업종 분류별로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13.3%), 기타서비스(−6.3%), 도매 및 소매업(−2.9%), 숙박 및 음식점업(−2.8%), 교육서비스(−1.9%) 모두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중 양식음식점(1.4%)이 유일하게 매출 증가, 호프/간이주점(−12.8%), 여관업(−8.1%), 일식/수산물(−7.7%), 패스트푸드점(−6.0%) 등 대부분 업종 감소
- 시·군별 매출은 청송(5.4%), 청도(1.6%), 성주(1.1%), 영천(0.1%) 증가, 울릉(−17.3%), 영양(−13.5%), 상주(−11.4%), 예천(−7.3%) 등 감소

★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매장면적 3천㎡ 이상 점포)의 월평균 판매액 지수

BC카드 매출액

(단위 : 억 원, %)

2023					2024		
08	09	10	11	12	01	02	03
4,085.0	4,194.2	4,286.2	4,139.7	4,243.1	3,682.5	3,596.3	**3,850.5**
(−4.6)	(2.8)	(−2.8)	(−2.5)	(−3.8)	(−2.3)	(1.8)	**(−3.8)**



주 : ( )는 전년동월비
자료 : 경북연구원 "2024년 3월 경북소비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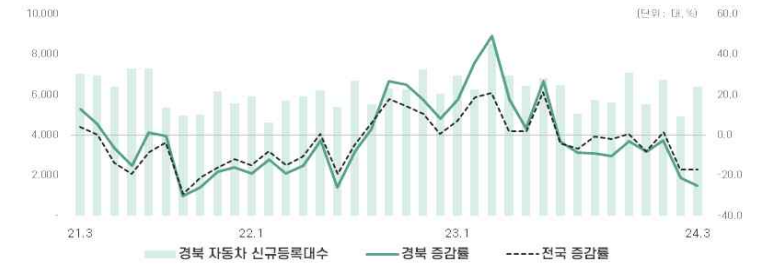
3월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6,378대로 전년동월대비 24.8% 하락

- 신규등록대수는 경기침체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하락세 9개월째 지속, 두자릿대 감소폭 2개월째 지속

자동차 신규등록대수

(단위 : 대,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	03
74,558	5,742	5,624	7,059	5,538	6,755	4,937	**6,378**
(−6.2)	(−9.1)	(−10.5)	(−2.9)	(−8.3)	(−2.6)	(−21.1)	**(−24.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현황보고"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21	74,558	54,933	1,206	17,432	987
2022	71,819	52,680	1,060	17,097	982
2023. 09	5,742	4,546	102	1,028	66
10	5,624	4,112	93	1,372	47
11	7,059	5,280	181	1,540	58
12	5,538	4,253	137	1,102	46
2024. 01	6,755	5,431	126	1,144	54
02	4,937	3,957	99	845	36
03	6,378	5,103	82	1,160	33

투자

3월 자본재수입액은 239,459천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8.2%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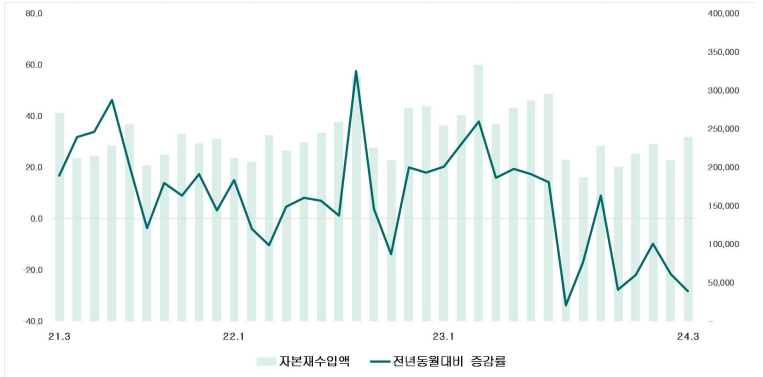
3월
자본재수입액
전년동월대비 감소

- 품목별로는 기계류와 정밀기기(−28.7%), 전기·전자기기(−31.7%), 기타 자본재(−18.1%)의 수입 감소, 수송장비(10.7%)의 수입 증가
- 기계류와 정밀기기는 기계류(−35.0%), 정밀기기(−23.5%), 반도체 제조용 장비(−19.4%)의 수입이 감소, 디스플레이패널 제조용장비(406.3%)의 수입 증가
- 전기·전자기기는 회로보호접속기(−36.0%), 발전기(−99.9%), 정보통신기기(−83.2%), 기타의 전기기기(−7.1%)의 수입 감소, 반도체(11.3%), 전기용접기기(20.2%), 변류기·변압기(45.3%), 전동기(7.2%)의 수입 증가
- 수송장비는 철도차량(−40.7%), 항공기(−50.7%), 화물 자동차(−0.9%), 선박(−0.3%)의 수입 감소, 자동차부품(18.6%)의 수입 증가

자본재수입액

(단위 : 천 달러, %)

2023					2024		
08	09	10	11	12	01	02	03
210,331	187,000	228,288	199,913	217,927	229,787	**209,141**	**239,459**
(−33.8)	(−17.1)	(9.0)	(−27.9)	(−22.1)	(−9.8)	**(−21.8)**	**(−28.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

★ 자본재수입액

: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로 재료, 원료, 기계, 설비 등의 수입액

건설

3월 건축물허가면적 전년동월대비 증가, 건축물착공면적 감소

3월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건축물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84.4% 증가한 1,387,615㎡

- 용도별로 주거용, 상업용은 증가, 공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168.8% 증가한 834,457㎡, 상업용은 110.0% 증가한 197,014㎡, 공업용은 84.8% 감소한 35,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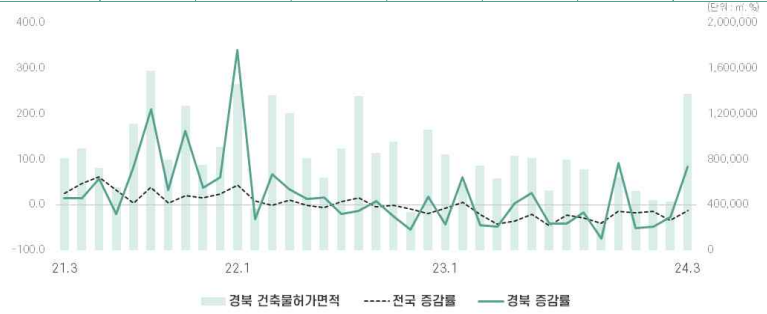
✓ 건축물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24.3% 감소한 291,7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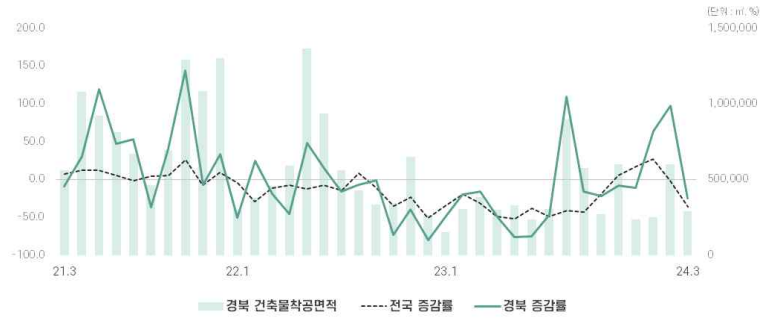
- 용도별로 상업용은 증가, 주거용, 공업용은 감소
- 주거용은 전년동월대비 315.0% 감소한 36,767㎡, 상업용은 0.2% 증가한 79,279㎡, 공업용은 14.2% 감소한 86,782㎡

건축물허가면적 및 건축물착공면적

(단위 : ㎡, %)

구분	2023				2024		
	09	10	11	12	01	02	03
건축허가면적	711,599	248,023	648,328	517,787	444,919	428,707	**1,387,615**
	(−16.7)	(−74.0)	(92.2)	(−51.3)	(−47.3)	(−26.9)	**(84.4)**
건축착공면적	578,400	268,400	600,711	234,811	248,768	599,804	**291,779**
	(−16.1)	(−21.9)	(−7.7)	(−11.1)	(63.7)	(97.7)	**(−24.3)**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 건축허가면적

: 건설(건축/토목)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건축착공면적

: 건설경기 동행지표로서 공사가 실제로 착수된 면적을 집계한 수치

건설수주액은 556,595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4.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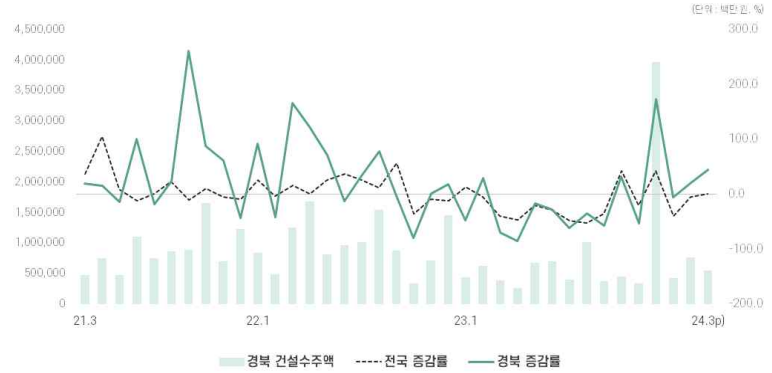
✓ 건설수주액 증가는 댐, 치산·치수, 토지조성, 기계설치, 공장·창고 등의 수주 증가 영향

- (공종별) 건축부문 103,983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6.8% 감소, 토목부문 452,612백만 원으로 214.0% 증가
- (발주자별) 공공부문 273,293백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9.6%, 민간부문 283,302백만 원으로 6.6% 각각 증가

건설수주액

(단위 : 백만 원,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p	03p
11,978,975	374,960	452,210	332,651	3,970,300	420,854	**761,383**	**556,595**
(17.6)	(−57.3)	(32.5)	(−53.3)	(172.7)	(−5.3)	**(21.5)**	**(44.7)**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 건설수주액

: 국내 일반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제시하는 건설공사물을 건설업체가 완공해주기로 한 것에 대한 쌍방간의 계약에 대한 금액

교역

3월 수출액,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감소

3월 무역수지 1,184백만 달러 흑자

✓ 수출액은 3,051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1.5%, 수입액은 1,867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3.7% 각각 감소, 무역수지는 1,184백만 달러 흑자

✓ 수출금액이 높은 품목은 무선통신기기(2.7%), 철강판(−8.4%), 정밀화학원료(−53.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6.2%), 자동차부품(4.4%) 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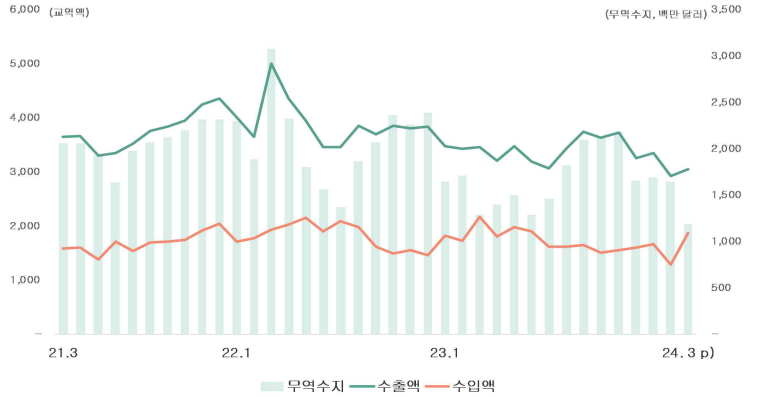
- 수입금액이 높은 품목은 정밀화학원료(−53.0%), 합금철선철및고철(−26.3%), 알루미늄(6.3%), 철강판(−24.5%), 반도체(13.4%) 등
- 수출금액에 따른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4.6%), 미국(10.1%), 베트남(−33.0%), 일본(−20.4%) 순

✓ 포항시 3월 화물수송은 3,830,900톤(R/T)으로 외항 3,348,631톤(R/T)

교역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23				2024		
	09	10	11	12	01[p]	02[p]	03[p]
수출액	3,740	3,635	3,726	3,252	**3,349**	**2,923**	**3,051**
	(1.5)	(−5.5)	(−2.1)	(−15.3)	**(−3.3)**	**(−14.7)**	**(−11.5)**
수입액	1,649	1,511	1,545	1,601	**1,656**	**1,276**	**1,867**
	(2.0)	(1.3)	(−0.5)	(10.3)	**(−9.1)**	**(−25.9)**	**(−13.7)**
무역수지	2,091	2,124	2,181	1,651	**1,693**	**1,647**	**1,184**



주 : p는 잠정치(Preliminary),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무역협회

1) (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고용

3월 경제활동인구는 148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3월 고용률 62.3%로 전국평균 상회

✓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만 8천 명(−1.2%)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는 80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전월대비 1.8% 각각 감소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 명,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	03
1,499	1,507	1,514	1,497	1,447	1,465	1,471	**1,485**
(2.9)	(−0.2)	(−0.9)	(−1.1)	(0.6)	(1.9)	(0.1)	**(−1.2)**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는 144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 감소

✓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 9천 명(−1.3%) 감소

- 전년동월대비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4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 3천 명), 건설업(5천 명)은 증가하였고, 농림어업(−2만 2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만 명), 제조업(−1만 명)에서 감소
- 전년동월대비 9대 광역도 취업자 증감률 중 경북(−1.3%)은 강원(-2.0%), 전남(−1.6%) 다음으로 낮은 수준

✓ 취업자 중 제조업은 2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 감소,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24만 3천 명으로 6.3% 증가

★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한 사람(취업자)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실업자)

★ 취업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취업자수

(단위 : 천 명,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	03
1,462	1,474	1,486	1,475	1,411	1,400	1,425	**1,445**
(3.7)	(−0.2)	(−0.4)	(−0.6)	(−0.2)	(1.0)	(−0.2)	**(−1.3)**



주 : ( )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률은 63.2%로 전국평균 상회, 실업률은 2.7%로 전국평균 하회

✓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63.2%로 전국평균(62.4%) 상회

- OECD기준(15~64세) 고용률은 67.6%로 전국평균 69.1%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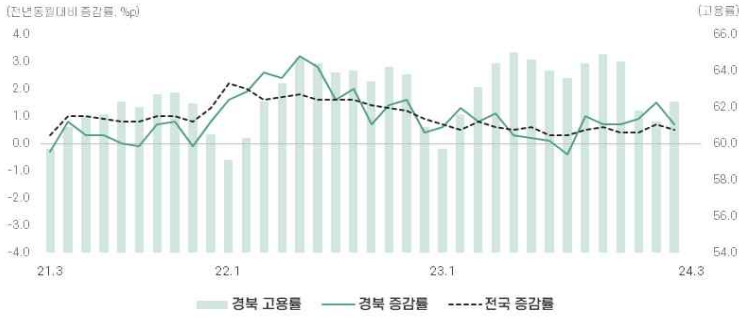
✓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한 2.7%로 전국평균(3.0%) 하회

- 실업자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천 명 증가

고용률 및 실업률

(단위 : %, %p)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	03
고용률	62.9	64.4	64.9	64.5	61.8	61.2	62.3	**63.2**
	(1.5)	(1.0)	(0.7)	(0.7)	(0.9)	(1.5)	(0.7)	**(0.1)**
실업률	2.5	2.2	1.8	1.5	4.3	4.4	3.1	**2.7**
	(−0.7)	(0.0)	(−0.5)	(−0.5)	(0.7)	(0.8)	(0.3)	**(0.1)**





★ 고용률

: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 10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자영업자수는 증가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9% 감소한 91만 9천 명

- 임금근로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만 8천 명 감소
-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수(−2.8%), 일용근로자수(−29.4%) 감소, 임시근로자수(7.0%) 증가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한 41만 9천 명

- 자영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천 명 증가
- 전년동월대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3.7%) 감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36.5%) 증가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	03
임금근로자	931	923	925	929	879	888	917	**919**
	(5.0)	(−1.3)	(−1.5)	(−0.1)	(−2.2)	(−0.2)	(0.0)	**(−1.9)**
자영업자	414	427	431	427	432	423	421	**419**
	(2.9)	(1.6)	(0.6)	(−0.8)	(2.9)	(2.9)	(−0.1)	**(0.7)**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임시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물가

4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는 114.81로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 보합, 전국평균(2.9%) 하회

- 전월대비 교통(1.0%), 음식·숙박(0.3%), 오락·문화(0.5%), 기타상품·서비스(0.6%) 등은 상승, 식료품·비주류음료(1.5%) 등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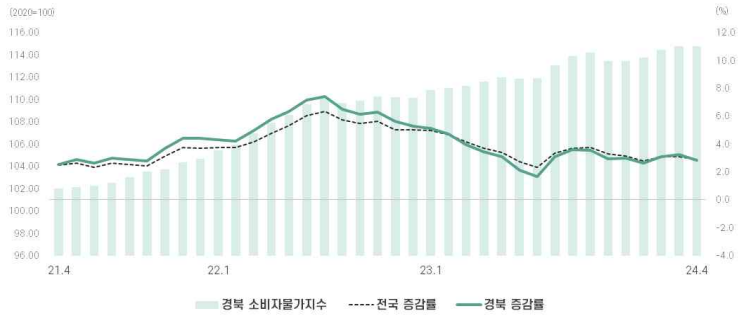
✓ 생활물가지수는 116.68로 전년동월대비 3.2% 상승, 전월대비 0.1%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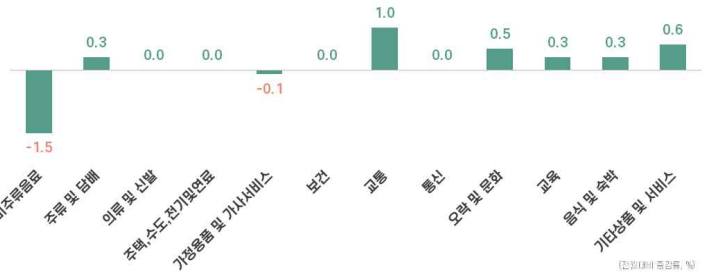
- 식품지수는 122.15로 전년동월대비 4.2%, 식품 이외는 113.22로 2.5% 각각 상승

물가지수

(2020=100, 단위 : %)

구분	2022	2023			2024			
	연간	10	11	12	01	02	03	04
소비자	108.74	114.19	113.48	113.48	113.77	114.47	114.81	**114.81**
물가지수	(5.8)	(3.5)	(2.9)	(3.0)	(2.7)	(3.1)	(3.2)	**(2.8)**
생활	110.26	116.55	115.47	114.89	115.50	116.33	116.79	**116.68**
물가지수	(6.6)	(4.2)	(3.3)	(3.2)	(3.0)	(3.4)	(3.7)	**(3.2)**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 생활물가지수

: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금융

2월 가계대출은 15.8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5% 증가, 전월대비 0.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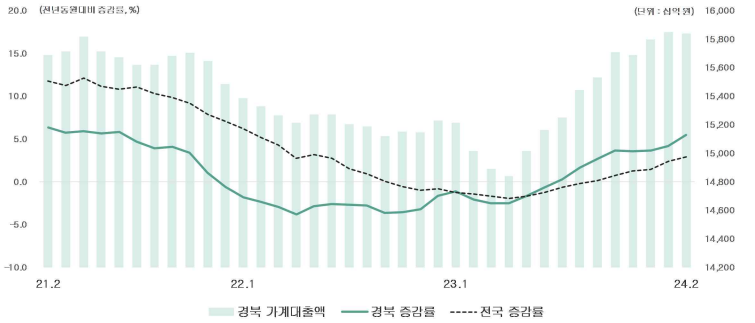
2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전년동월대비 각각 증가

✓ 총 대출액 52.0조 원 중 가계대출은 30.4% 차지

가계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2	2023					2024	
연간	08	09	10	11	12	01	02
15,233	15,447	15,534	15,710	15,692	15,801	15,854	**15,842**
(−2.8)	(1.7)	(2.7)	(3.7)	(3.6)	(3.7)	(4.2)	**(5.5)**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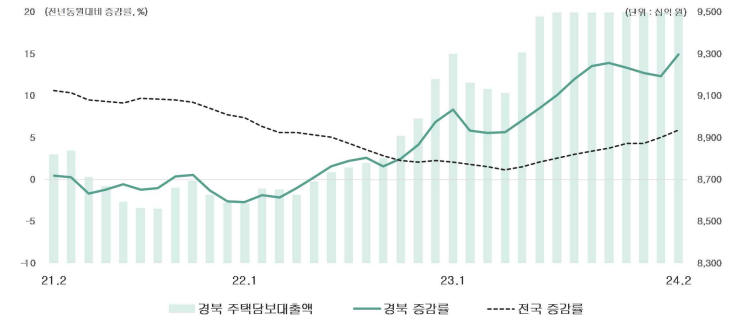
주택담보대출은 10.5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전월대비 0.8% 각각 증가

✓ 총 가계대출 15.8조 원 중 주택담보대출은 66.5% 차지

주택담보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2	2023					2024	
연간	08	09	10	11	12	01	02
8,781	9,838	9,996	10,146	10,195	10,351	10,452	**10,531**
(1.2)	(12.0)	(13.6)	(13.9)	(13.4)	(12.7)	(12.4)	**(15.0)**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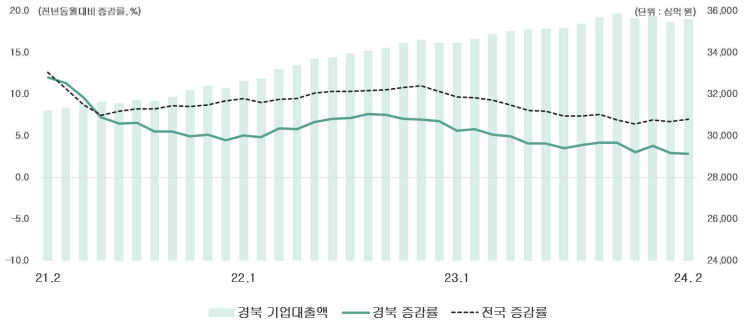
기업대출은 35.6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전월대비 0.4% 각각 증가

✓ 총 대출액 52.1조 원 중 기업대출은 68.4% 차지

기업대출액

(단위 : 십억 원, %)

2022	2023					2024	
연간	08	09	10	11	12	01	02
33,765	35,390	35,672	35,883	35,652	35,737	35,464	**35,618**
(6.5)	(3.9)	(4.2)	(4.2)	(3.0)	(3.8)	(2.9)	**(2.8)**



주 : ( )는 전년동월비임.
자료 : 한국은행 "지역경제통계"

부동산

3월 주택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주택전세가격지수는 하락

3월 아파트매매지수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3% 상승, 전월대비 보합
- 경산(−2.3%), 포항(−0.5%) 하락, 구미(0.1%) 상승

✓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9%, 전월대비 0.1% 각각 하락
- 경산(−4.4%), 구미(−1.7%), 포항(−1.6%) 모두 하락

주택가격지수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3					2024		
	08	09	10	11	12	01	02	03
매매	100.1	100.3	100.5	100.6	100.6	100.6	100.6	**100.6**
	(−3.1)	(−2.8)	(−2.4)	(−1.8)	(−1.0)	(−0.5)	(0.0)	**(0.3)**
전세	99.1	99.2	99.2	99.2	99.2	99.1	99.0	**98.9**
	(−3.7)	(−3.5)	(−3.4)	(−3.0)	(−2.2)	(−1.6)	(−1.2)	**(−0.9)**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보합, 아파트전세가격지수는 하락

✓ 아파트매매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각각 보합

- 경산(−2.8%), 포항(−1.1%), 구미(−0.2%) 하락, 안동(1.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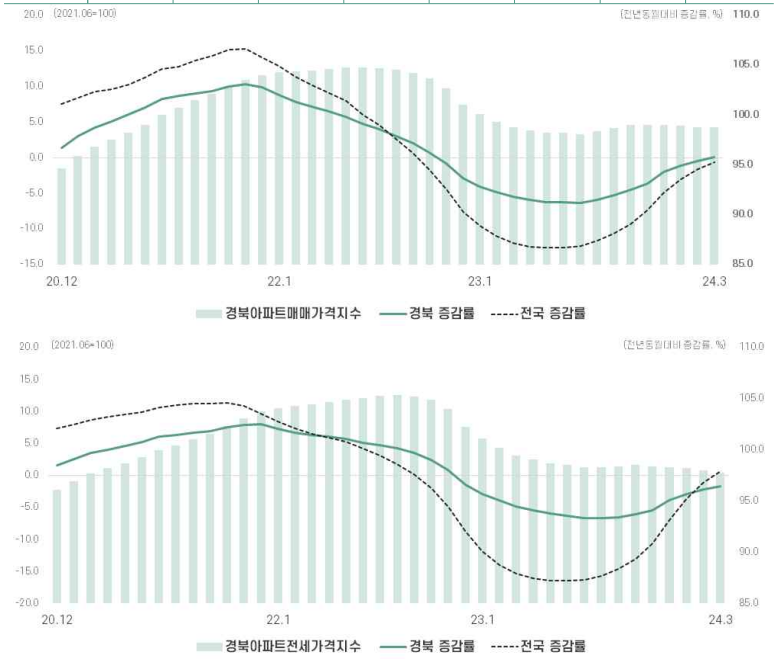
✓ 아파트전세가격지수 전년동월대비 1.7%, 전월대비 0.2% 각각 하락

- 경산(−5.5%), 포항(−2.5%), 구미(−2.1%) 하락, 안동(0.2%) 증가

아파트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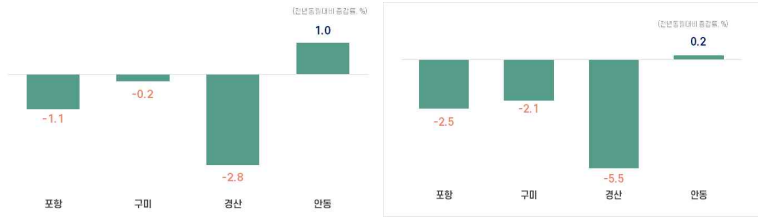
(2021.06=100, 단위 : %)

구분	2023					2024		
	08	09	10	11	12	01	02	02
매매	98.4	98.7	99.0	99.0	99.0	98.9	98.8	**98.8**
	(−5.9)	(−5.3)	(−4.5)	(−3.6)	(−2.0)	(−1.2)	(−0.5)	**(0.0)**
전세	98.3	98.4	98.5	98.4	98.3	98.2	98.0	**97.8**
	(−6.7)	(−6.5)	(−6.1)	(−5.4)	(−3.9)	(−2.8)	(−2.2)	**(−1.7)**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군별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지수 증감률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세

주택매매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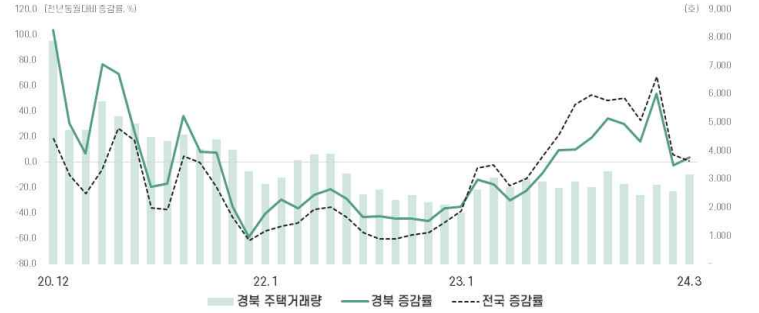
✓ 주택매매거래량은 3,153호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전국도 전년동월대비 증가(21.4%)

- 경산(30.6%), 안동(19.9%), 포함(6.8%), 구미(3.1%) 주택매매거래량 모두 증가

주택매매거래량

(단위 : 호, %)

2022	2023				2024		
연간	09	10	11	12	01	02	03
34,594	2,716	3,274	2,821	2,446	2,805	2,565	**3,153**
(−36.1)	(19.6)	(34.2)	(29.8)	(16.5)	(53.9)	(−2.4)	**(3.8)**



주 : ( )는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

미분양주택은 9,561호로 전년동월대비 6.0%, 전월대비 4.4% 증가

✓ 미분양 주택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포항(3,805호), 구미(1,943호) 경주(1,437호), 경산(753호) 등의 순

중소기업

3월 어음부도율은 0.27%

3월 어음부도율 전국대비 동일

✓ 어음부도율은 전년동월대비 0.23%p, 전월대비 0.17%p 각각 증가

- 전국 어음부도율은 0.27%이고, 전북(0.74%), 경기(0.69%), 경북(0.27%), 경남(0.20%), 전남(0.17%) 순

✓ 부도업체수는 0개로 전년동월대비 2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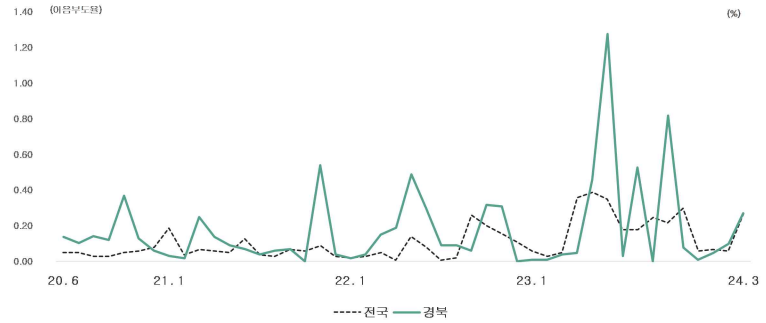
- 총 부도금액은 53.2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3.1억 원 증가

3월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44개 감소, 전월대비 28개 증가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신설법인

(단위 : %, 개)

구분	2023					2024		
	08	09	10	11	12	01	02	03
어음부도율	0.53	0.00	0.82	0.08	0.01	0.05	0.10	**0.27**
부도업체수	0	0	0	0	0	0	2	**0**
전년동월대비	0	−3	−1	−1	0	0	2	**−2**
신설법인수	300	309	288	281	270	388	265	**293**
전년동월대비	−8	50	33	20	−45	95	−59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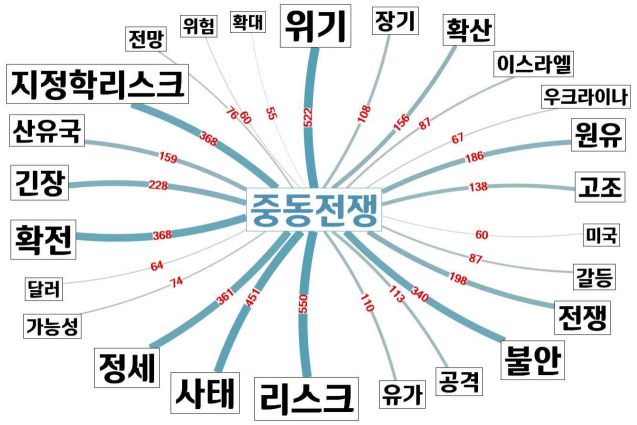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어음부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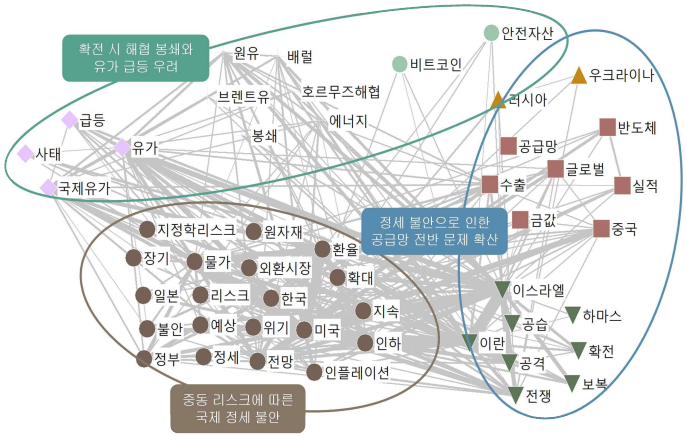
: 일정 기간 동안 어음결제소에서 거래된 총 교환금액 중에서 잔고 부족으로 인해 부도난 어음부도액의 비율

경제분야 키워드 BIG DATA

중동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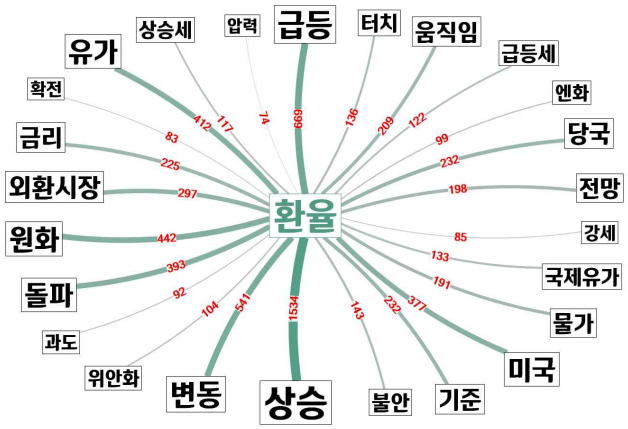


주요 단어 : 리스크(550), 위기(522), 확전(368), 지정학리스크(368), 원유(186) 등 이스라엘-이란과의 전쟁 확전으로 국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유가 급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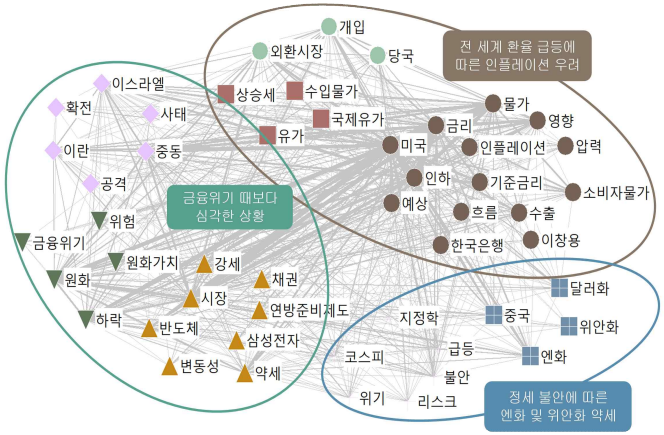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이스라엘-이란 간 전쟁 확산으로 중동 리스크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유가 급등 및 공급망 차질 우려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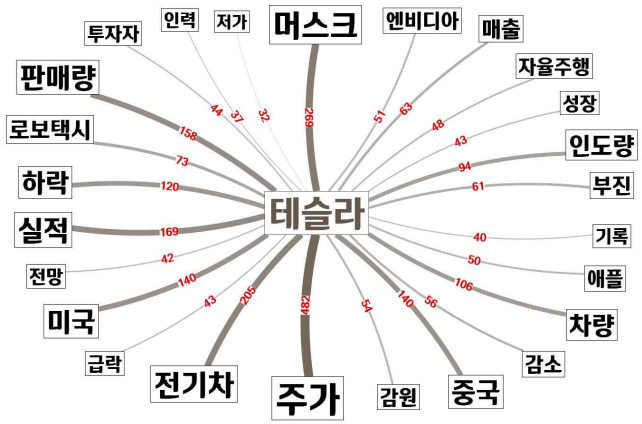


주요 단어 : 상승(1,534), 급등(699), 원화(442), 금리(225), 물가(191) 등 원화, 엔화, 위안화 등의 약세로 인한 환율 급등과 이로 인한 유가,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자극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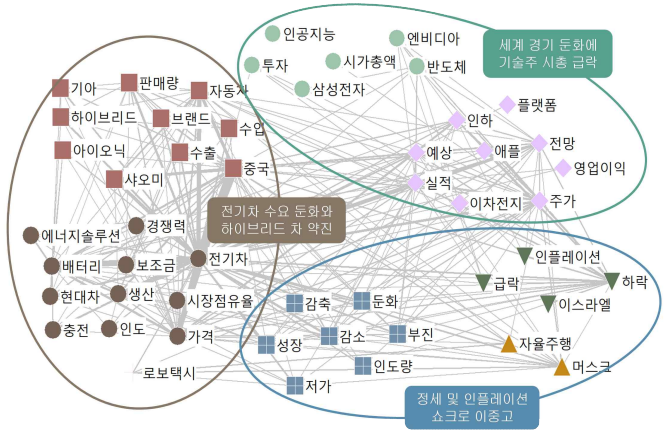


주요 주제 : 전 세계 환율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확산과 국제 정세 불안까지 겹쳐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국제 경제 악화 상황 맞이

테슬라



주요 단어 : 주가(482), 실적(169), 판매량(158), 미국(140), 인도량(94) 등 세계 경기 둔화 및 기술주 전망 악화 등으로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가 폭락



주요 주제 : 국제 정세 및 인플레이션 쇼크로 이중고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캐즘(침체기) 현상이 발생하여 수요 둔화에 따른 기술주 주가 급락

※ 분석 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26일
(상단) 연관어 분석 : 주제어와 동시출현한 단어를 등장 빈도에 따라 시각화한 기법
(하단)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 분석 : 각각의 범주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문맥 속에서의 역할에 따라 군집별로 묶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

이달의 이슈 BIG DATA

01 중동전쟁 : 중동전쟁 격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 영향

☑ 연관 검색어 : 이스라엘, 이란, 미중갈등, 지정학리스크, 인플레이션

현황

○ 이스라엘-이란 두 나라 간 첫 전면 군사 충돌 발생으로 6개월 이상 이어져 온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범중동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 이란이 시리아 주재 자국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4월 13일 이스라엘을 드론과 미사일 300여 기로 공격 개시
- 이란은 이전에도 다른 무장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해 이스라엘을 대신 공격하도록 유도
  * 이란은 직접 공격 대신 시아파의 세가 강한 시리아·이라크·레바논 무장 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중동 내 영향력 유지
- 이란과 이스라엘이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슬람 종교 지도자 호메이니가 세속주의 팔레비 왕정을 1979년 무너뜨리고 이슬람 근본주의 신정(神政) 체제를 구축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단절되고 적대 관계가 되었으며, 미국을 적으로 규정한 호메이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큰 사탄 옆 작은 사탄'이라고 부를 정도로 적개심
- 이번 드론·미사일 공격의 원인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 폭격이며, 이전에도 연쇄 폭탄 테러 등 이스라엘 배후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직접적 메시지 발신을 위한 공격 감행

○ 이스라엘·이란의 주변국들은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미 경제적 타격 진행 중

- 유엔개발계획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주변 3국인 이집트·레바논·요르단에서 23만 명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
- 본거지를 빼앗긴 무장 단체 대원들이 자국으로 흘러들어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내부 정세가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 우려



○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바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동전쟁 위험은 오히려 커진 상황

-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더 큰 규모의 광범위한 보복 공격을 계획했으나, 확전을 우려한 미국 등 동맹국의 압박으로 축소 전환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국면에서 이란을 대리해 '그림자 전쟁'을 벌이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세력까지 이란의 보복에 속속 '참전'함에 따라 중동은 일촉즉발의 확전 갈림길

자료 : 한겨레

영향

○ 중동뿐만 아니라 오래된 미·중 갈등까지 재점화되면서 점차 고조되는 '지정학 리스크' 발생

- 미국이 연이어 중국 기업을 겨냥한 제재(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7.5%에서 25%로 인상, 중국 내 일부 은행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하는 제재 초안 작성 등)를 예고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다시 경색 국면으로 진입
- 중국이 부동산 침체 위기로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중국계 은행에 대한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경제 치명타, 중국 당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치
- 지정학 리스크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차질 우려 등 투자 위축 지속 전망

○ 이스라엘-이란 간 전면전 또는 유사한 전쟁 확산이 벌어질 경우 유가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제원유 가격은 2023년 6월 공급과잉 해소로 저점을 찍은 뒤 2024년 4월 현재(4월 1일~22일 일평균 가격 기준) 20% 상승, 유가 급등 충격은 물가에 영향을 미쳐 2024년 1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0%로 정책당국의 물가안정목표(2.0%) 상회
- 국제 유가가 전면전 없이 현 긴장 상태를 유지해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8.55달러에 머문다면, 2024년 4분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1% 수준으로 횡보
- 국지전 빈발(리비아 내전 수준) 시 국제유가가 배럴당 97.5달러까지 상승하며, 물가상승률은 3.37%로 높아질 수 있으며, 무력 충돌이 본격화할 경우 원유 일일 생산량이 줄며, 배럴당 115.0달러(이라크 전쟁 수준) 또는 배럴당 148.5달러(1973년 아랍 석유금수조치 수준)까지 상승, 각각의 물가상승률은 4.00%와 4.98%로 분석

○ 환율·물가·유가 '3高 압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2%대 성장 달성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가능

- OECD에 따르면, 회원국 물가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2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은 6.9%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35개국 중 튀르키예(71.1%) 아이슬란드(7.5%) 다음으로 OECD 평균인 5.3%와 비교해도 약 1.6%p 상회
- 환율은 올 들어 이례적인 상승세를 기록해 원·달러 환율은 4월 19일 기준 1,382.2원으로 거래를 마쳐 2023년 말 종가(1,288.0원) 대비 7.3% 상승해 같은 기간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의 6.9%, 2009년의 5.8%보다 높은 상승
-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4월 19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7.72달러로 3개월 전(78.88달러) 대비 9달러 가까이 상승,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는 이미 국내에서도 나타나 4월 셋째주(14~1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695.1원으로 1주 만에 21.8원 상승
- 장기간의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고물가에 더욱 움츠러들 가능성으로 정부의 2%대 경제성장률 목표는 수정 불가피

대응

○ 단기적으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내의 안정적 석유공급을 위한 전략비축유 방출, 해외생산 원유도입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및 이행 태세 정립 필요

- 국내외 석유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시 비축유 방출 등 시장안정 대책을 통해 에너지 안보 유지

○ 장기적으로는 정세 불안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 달러화 강세 압력 강화 가능성이 높아 통화정책 전환에 회의적인 상황에서 금융정책 및 공급망 대응에 있어 과감한 정책 집행 필요

- 서방의 이란 추가 제재 등에 따른 공급망 혼란과 무역 위축에 따른 경상·재정수지 가능성도 남아 있어 올해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 확대
-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는 원화를 고려할 때 향후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사회 이목이 중동에 집중되는 동안 러시아가 이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점도 지정학적 불안 잠재 요인으로 선제 및 예방적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

02 환율 : 뉴노멀 고환율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력

☑ 연관 검색어 : 환율상승(평가절하), 고유가, 국가신용도, 수출다변화

현황

○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 요인이 당분간 고환율 시대 도래 가능성에 영향

- 총선 후 야당의 추경 요구,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증대, 저출산 등 문제는 중장기적 구조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국내외 여러 정책 변동에 의한 금리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 상존
-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미국 금리 인하 지연 등 외부적 요인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화폐가치 약세에 영향을 주며 달러 대비 환율이 동반 상승세
- 여러 불확실성하 대중국 무역적자와 고유가 이중고가 나타나고 미국 트럼프 당선 여부(미국 보호주의 가능성) 등도 환율 변동의 외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율 1,400원 시대 대비 필요

※ 정부 개입 이후 안정된 환율이 이스라엘의 이란 반격에 흔들렸지만, 전쟁이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며 환율은 다시 안정된 상황으로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강 달러 영향으로 원화가치 평가절하, 엔화 대비 원화가치는 평가절상

- 현재의 원화가치는 미국 강달러의 영향으로 과거 10년 평균환율인 1176원(2014년4월25일~2024년4월24일) 보다 200원 이상 평가절하 상태
- 일본 엔화도 같이 약세이지만, 100엔당 원화 환율은 평가 절상되어 있음. 이는 한국은 일본과 달리 과거부터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정 환율 레벨에서는 균형을 찾아왔기 때문
-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원화 약세는 이례적이라 평가되고 있으며, 1달러당 원화 환율의 10년 평균 절하율은 16%, 100엔당 원화 환율은 4% 절상

※ 7년간(2015~2021)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유지.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벗어난 건 2022년에 1,294원을 기록하면서부터, 이후 2023년에는 1,308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1,340원(1월1일~4월24일 평균)까지 상승

<표> 최근 10년간 원화 환율(미국, 일본)



자료: 우리은행, 연도별 평균환율, 2024년 4월 24일 기준, 1원 미만 반올림

※ 미국 원·달러 환율이 원화약세인 것과 달리 일본 원·엔 환율은 반대로 원화강세. 2024년 연평균 100엔당 원화 환율은 897원(1월1일~4월24일 평균). 이는 10년 전보다 원화가 4% 올랐다는 의미

○ 한국 무역수지와 한국 정부 재정 적자 심각

-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무역수지는 심각한 수준, 2017년 한국 무역수지 흑자 952억달러 이후 가파른 내리막길
- 2022년부터 무역수지 적자로 돌아서서 -478억달러 적자규모. 한국 원화가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인 시점과 정확히 일치 2023년에도 전년보다 적자폭은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103억달러의 무역수지 기록
- 중국 산업의 재편과 중국 최첨단 제조업의 부상으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최고치인 952억달러를 기록, 한국 무역수지 총 흑자액의 47% 규모 차지
- 유가도 안정세를 보여 무역수지 적자국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적자액도 144억 달러로 양호

※ 2017년 당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는 중국.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443억달러 흑자 기록

※ 최근 반도체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부터 20% 수준 정도. 반도체 외에 다른 품목들의 비중이 80%. 현재의 글로벌 경쟁 구도상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폭 증가하기는 어려운 실정

○ 국가신용도와 정부 재정안정성이 중요

-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국가신용도와 정부의 재정 안정성인데.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탄탄하지만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국가신용도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재정수지 적자가 극심
-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마무리되던 2022년에도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을 기록하는 극심한 부진을 보였으며, 문제는 앞으로도 급격한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할 요인보다는 증가할 요인이 더 많아질 수 있음

○ 트럼프 재선 시 지정학적 리스크 증폭의 위험 있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혼란스러운 시기이며, 러시아, 북한, 중국의 동맹 관계는 더욱 탄탄
- 우크라 전쟁 시기 트럼프의 과거 통치 스타일을 보면 우방을 중시하기보다 실리적인 이익에 몰입하는 경향

※ 대선을 앞두고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미국 최우선주의를 주장하는 트럼프는 최근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

고환율시대 대응 방안

○ 높은 원달러 환율은 복합적 국제적 영향을 받고, 수출기반의 한국경제에 다양한 대응책 모색 필요

-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제적, 내부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
- 높은 환율은 수출 기반의 한국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도 다각도로 고려 필요

○ 경제정책 방향

- 시장 기능에 의한 자연스러운 환율 조정을 우선시하며,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할 때 한정해 중앙은행의 개입 고려
- 안정적인 외환 시장 운영을 위해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마련
-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적절히 운용하여 환율 변동성 완화

※ 환율 오르면 수입 원당·원맥·치즈값도 올라 고환율 장기화될 경우 가계 및 원자재 수입 기업 부담 가중, 수출 업체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 산업 및 무역 정책

- 수출 다변화 전략, 기존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흥 시장 및 다양한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
- 수입 대체 산업 육성, 고환율 시대 해외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대체산업을 육성하여 수입 대체 효과 제고
- 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및 혁신을 통해 주요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화 수익의 안정성과 성장성 제고

※ 환율이 수출에는 유리하게 작용해 영업이익이 증가하지만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 수입보다는 제품 수출이 많아 불리한 상황, 석유제품 수출 포지션이 있어 상쇄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하지만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실적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응책 모색

○ 재정 및 투자 정책

- 대외 신용도 관리, 정부 및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여, 국제적인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고 자본 유출을 방지
- 해외 투자자 유치,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통해 해외 직접투자(FDI)를 적극 유치하여 경제에 활력
- 정부의 재정 정책 유연성, 경기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의 재정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여 경제에 적시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도움

○ 금융당국의 추가적 신용회복 지원 조치 필요

-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단축 필요
-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 등록 기간을 2년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으로 단축하는 제도 시행

03 테슬라 : 테슬라와 토요타 미래차 주도권 전망

☑ 연관 검색어 : 전기차, 캐즘, 기술주, 하이브리드, 인원 감축

현황

○ 2020년 6월 10일 테슬라가 토요타를 제치고 시총 기준 세계 최대 자동차 업체로 부상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환경과 기후 자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에 관심
- 주문 뒤 1년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고, 시총이 1,900억 달러를 돌파해 1,810억 달러에 그친 토요타 추월

○ 하지만 최근 테슬라는 실적 하락세 뚜렷

- 2024년 1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9% 감소하였고, 순이익은 11억 2,900만 달러(1조 5,535억)로 지난해 비해 55% 감소
- 총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도 각각 17.4%, 5.5%로 전년 대비 1.9%p, 5.9%p 하락

○ 테슬라의 실적 하락에는 복합적인 원인 작용

- 핵심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량이 감소 →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하이브리드차로 옮겨갔고, 저가 물량 공세에 나선 중국 업체에 밀려 재고가 늘면서 가격을 낮춘 영향으로 판매량 하락
- 사이버트럭의 리콜사태, 오너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등 요인도 하락세에 영향

○ 실적 부진에 따라 전 세계 직원을 10% 가량 감원 예상

- 전 세계 직원 14만 473명의 10% 정도인 1만 4,000명 해고 계획

○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차에 집중한 토요타는 최대 수혜로 전 세계 자동차 1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낮은 가격,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높은 연비, 편리한 주유 등에 의해 하이브리드 수요 증가 추세
- 2024년에만 40% 주가 상승
- 테슬라 주가가 12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토요타가 1위 자동차 업체 차지

○ 토요타는 전기차 올인을 경계하며 하이브리드차 개발과 생산에 주력

- 4년 연속 세계 신차 판매량 1위를 기록 중이고, 향후 생산량을 2년 연속 사상 최대로 늘릴 계획

영향

○ 전기차 생산을 서두르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은 하이브리드차 라인 강화로 방향 전환

- 포드는 차세대 전기 픽업트럭을 포함해 북미 전기차 출시 계획을 1~2년 연기
- 2030년까지 미국 출시 모델 전부에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

○ 수록 내용 및 경북경제동향에 관한 문의는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 054-650-904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행총괄
– (책임연구자) 임규채 사업본부장
– (참여연구진) 김용현 선임연구위원, 박민규 연구위원, 이승아 전문위원, 박효찬 전문위원, 김효미 연구원
○ 매월 발표되는 경북경제동향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및 경북연구원 홈페이지 정기간행물 경제동향분석에 제공되고 있습니다.